

전일동향

전일대비 2.50원 상승한 1,442.50원에 마감

24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2.50원 상승한 1,442.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70원 상승한 1,444.7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상승하며 1,442.5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6.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5.34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44.70	1448.00	1439.80	1442.50	1445.80
엔화	930.72	934.65	923.78	925.34	-	
유로화	1697.56	1705.53	1695.82	1698.53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7	-3.55	-8.77
결제환율(수입)	0	-2.4	-6.7	-12.69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위험회피심리 완화에...1,44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42.50) 대비 0.30원 하락한 1,440.9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대외적 상승 압력에도 위험회피 심리 완화된 영향으로 하락 전망이다. 간밤 뉴욕증시가 AI 관련 우려를 딛고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세를 기록했고, 여기에 이란 외무부 장관이 미국과의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 내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이러한 대외 분위기가 국내 증시 상승세와 맞물려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진다면 금일 환율 하락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 엔화가 전일 다카이치 총리가 우에다 BOJ 총재와의 회담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난색을 보였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는 등 대외적 상방 압력이 존재하며, 금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환율 하락 폭을 제한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36.75 ~ 1445.75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013.4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30원 ↓
	■ 美 다우지수 : 49174.5, +370.44p(+0.7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65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